

# 도자기 위 피어난 각자의 계절, 꽃으로 물든 일상

플라워카페 도이브·스튜디오 연재 프로젝트

## 취향 담은 플라워 클래스...꽃과 도자기로 채운 물입의 시간 새로운 고객층 잇는 경험형 콘텐츠...지역 창업자 협업 눈길

향아리 모양의 도자기 위로 여름 꽃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았다.

참가자들은 가위로 줄기를 다듬고 꽃의 방향과 높이를 살피며 저마다의 꽃꽂이를 완성해갔다. 공간을 채운 은은한 꽃향 사이로 각기 다른 조여름 풍경이 펼쳐졌다.

플라워 카페 도이브가 지난 6일 오전 스튜디오 연재와의 협업으로 '향아리 도자기 꽃꽂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클래스는 도이브가 진행을 맡고, 스튜디오 연재가 도자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꾸러졌다. 참가자들은 연재의 향아리 도자기를 화기로 삼아 꽃을 배치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갔다.

수업에는 카라, 덴파레, 거베라, 장미, 리시안 셔스, 청지팡, 귀리 등 여름철에 어울리는 꽃과 소재들이 사용됐다.

수업을 진행한 오채원 도이브 대표는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꽃의 이름과 특징을 소개한 뒤,

줄기 손질법과 배치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후 참가자들이 각자 작업을 이어갈 때는 질문에 답하며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이날 수강생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층으로, SNS를 통해 프로그램을 알게 되거나 지인과 함께 수업을 찾았다. 이들은 완성된 결과물보다 직접 꽃을 고르고 다듬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며 차분한 시간을 보냈다.

꽃과 도자기가 만난 이번 클래스는 경험형 콘텐츠를 선호하는 젊은 층의 관심을 끌었다.

도이브 고객들에게는 연재의 도자기를 알리는 계기가 됐고, 연재 역시 꽃이라는 매개를 통해 새로운 고객층과 접점을 넓혔다.

특히 지역 청년 사업체들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오채원 대표는 "꽃과 도자기는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자연을 담고 시간을 기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꽃과 도



도이브 꽃꽂이 클래스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꽃을 다듬으며 작품을 만들고 있다.



연재의 향아리 도자기 위에 여름꽃을 담아 완성한 꽃꽂이 작품



스튜디오 연재 도자기 작품

자기가 만나 서로의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며 꽃을 경험하는 방식을 넓혀가고 싶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꽃꽂이 과정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한편, 꽃과 도자기가 어우러지는 매력도 함께 경험했다고 전했다.

민명진(88)씨는 "평소에는 꽃을 예쁘게 꽂는

데만 집중했는데 방향과 높이, 공간과의 균형까지 고려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며 "같은 꽃을 사용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점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조화랑(88)씨는 "도자기의 질감과 색감이 꽃과 잘 어우러져 더욱 완성도 있게 느껴졌다"며 "꽃만 있을 때에는 또 다른 매력이 생겨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손끝...바람...“접고, 펼치며, 사유하다”

류현자 개인전, 내일부터 아크갤러리

합죽선 위에 느낌과 비움의 미학을 담은 류현자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제31회 류현자 개인전 '접고, 펼치며, 사유하다'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동구 아크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그동안 작업해 온 30여 점의 합죽선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부채그림전이다. 합죽선의 선면도 위에 그림과 글을 더해 사유와 명상의 시간을 담아냈다.

합죽선은 대나무 살 위에 종이를 붙인 선면에 글이나 그림을 그려 만든 전통 부채다. 예부터 선비들의 여유와 사유의 문화를 상징하는 매체로 활용돼 왔다.

전시 작품에는 금강경과 반야심경, 주기도문, 초의선사의 '동다송' 등을 직접 옮겨 쓴 사경(寫經)을 바탕으로 비선과 사군자, 연꽃, 보름달 등의 소재가 더해졌다.

작가는 "사경"을 종교적 의미를 넘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의 과정으로 바



류현자 부채그림전

라보며,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주제로 이어 온 자신의 작업 세계와 연결했다.

또한 합죽선이라는 전통 매체를 통해 옛사람들의 느린 사유와 비움의 태도를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보편적인 예술 언어로 확장하고자 했다.

작가는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는 사경은 나를 비워내는 명상이자 삶의 고단함을 견뎌내는 이들을 위한 위로의 과정"이라며 "사모곡은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한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을 담은 노래"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합죽선을 통해 잠시

일상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비워낸 마음의 자리에 사랑의 바람이 스며드는 모습을 전시를 통해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화두로 '보본반시(報本反始)'를 제시한다. '근본에 보답하고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의 이 말은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처음 품었던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를 담고 있다.

작가는 "이 부채들이 만들어내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부모님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위안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아트광주 '라이징 스타전' 참여 청년 작가 공모

광주문화재단 4명 선정 지원

광주문화재단이 오는 10월 열리는 2026 광주 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의 특별 프로그램 '라이징 스타전'에 참여할 청년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는 광주·전남 통합 취지에 맞춰 양 지역의 유망 청년 작가를 발굴해 국내외 미술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공모 대상은 광주·전남 소재 대학에서 미술 분야를 전공했거나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 또는 전남도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이다. 모집 분야는 회화·조각·판화·사진·설치·미디어아트·공예 등 미술 전 분야다.

최종 선정된 작가 4명에게는 아트광주 행사장 내 전용 전시 부스를 무상 지원하며, 공식 도록 게재와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통한 프로모션 기회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받는다. 신청 서류는 광주문화재단 또는 아트광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아트광주 공식 이메일



지난해 아트광주 25 라이징스타전 전경

(artgwngju.official@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호남권 최대 규모 국제아트페어인 아트광주는 오는 10월22일부터 2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4월 국내외 갤러리 모집을 마쳤으며, 미술작품 유통 활성화와 미술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다양한 특별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모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 특 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각 시·군 선착순 모집★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